

위메프, 26일까지 스키 시즌권 특가 판매
위메프가 26일까지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2017·18 스키 시즌권을 특가 판매한다. 전일권·주중권·야심권·심야권 등으로 구성됐다. 전일권 기준 성인 29만원·소년 20만원·유아 및 미취학 아동 9만원이다. 특히 2·3인권으로 구성된 '위드유 시즌권'이 눈에 띈다.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사연 많은 '가을 스마트폰 대전'

'갤럭시8' 전작 조기단종 악몽 지우기
'아이폰8' 10주년 걸맞은 혁신 고민
'V30' 스마트폰 사업 후자전환 절실

올 가을 펼쳐질 '스마트폰 대전'의 대진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IT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8월부터 9월까지 잇달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한다.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을 내놓고, 일명 '8의 전쟁'을 벌인다. LG전자는 하반기 라인업인 'V'시리즈의 최신 제품 'V30'을 준비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가을 격돌에서 각 사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풀어야 할 나름의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8월 말 공개 예정인 갤럭시노트8은 추락한 '노트'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전작 갤럭시노트7은 홍채인식 등 뛰어난 성능을 갖췄음에도 배터리 불량으로 인해 조기 단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 LG 전략 스마트폰 공개 행사 초청장

따라서 갤럭시노트8로 대체된 프리미엄 제품군인 노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최근 "갤럭시노트8을 8월 말 공개하고, 9월 중 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공개와 출시 일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선 8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쟁 제품보다 한발 일찍 선보여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현재까지의 각종 소문을 종합해 보면 갤럭시노트8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듀얼 카메라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9월 즈음 아이폰8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스마트폰(아이폰)이 등장한지 10주년을 맞는 해여서 새 아이폰에 쓸리는 눈길 이 유난히 뜨겁다. 아이폰은 2007년 등장해 휴대전화의 단소 통화 및 문자 도구가 아닌 인터넷을 하고 게임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

는 새로운 미디어로 바뀌어왔다. 한국에서도 2009년 '아이폰3GS'가 출시돼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 현재까지 아이폰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은 10억대를 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이폰이란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전처럼 찬사 일색이 아니다. 신제품이 공개되면 '새롭다'는 호평과 함께 '혁신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만큼 다른 스마트폰 제품들이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이다. 아이폰8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차세대 증강현실(AR)기능의 구현 여부다.

최근 초청장을 통해 공개 일정을 밝힌 LG전자의 V30은 더욱 타 제품보다 아예가 무겁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분기까지 무려 9분기 연속 적자다. 지난 1분기 2억원으로 영업 손실을 줄이며 터닝 포인트를 맞는 듯 하다가 2분기 다시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LG전자는 8월31일 독일 베를린에서 V30을 공개한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7' 개막 하루 전이다. 18대9 폴비전 디스플레이와 듀얼 카메라 등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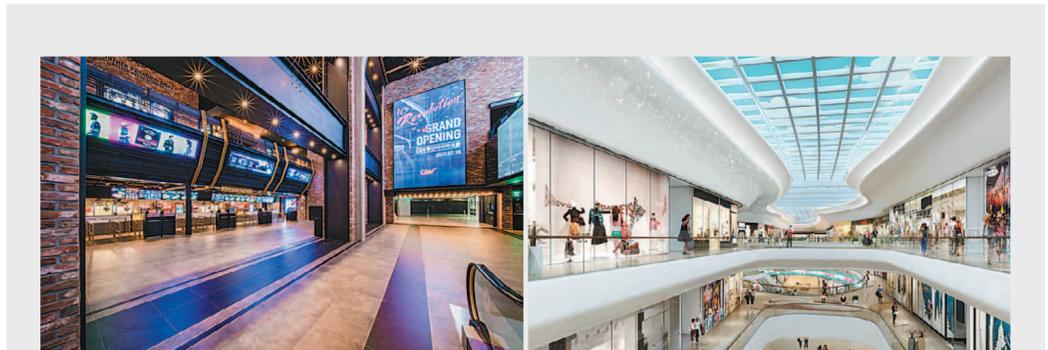
경제현장 .jpg

세븐일레븐 '맛을 팔로우 하다'



모델들이 18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서 '맛8도시락'을 소개하고 있다. '맛8도시락'은 세븐일레븐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콘셉트로 제작한 신제품 도시락이다. 이번에는 '춘천식 솥밥 닭갈비 도시락', '안양식 바삭 불고기 도시락', '보성녹두 고추장 불고기 도시락', '부산식 매콤 고들여조림 도시락' 등 4종, 앞으로 군산, 전주, 담양, 무안, 속초, 양양의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세븐일레븐



18일 오픈한 'CGV용산아이파크몰' 내부(왼쪽)와 8월 24일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 고양' 내부 조감도. 복합쇼핑몰이 영화·레저·힐링 등 다채로운 테마로 무장하며 변신 중이다.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풀 마케팅' 일환으로, 가까운 유통 매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아이파크몰·신세계

"원하는 것 다 갖춘다" 복합쇼핑몰 욕심많은 변신

CGV용산아이파크몰...무비테마파크 다양한 즐길거리, 스타필드 고양 오픈 매장 방문 유도하는 '풀 마케팅' 흐름

올 여름, 복합쇼핑몰이 변신 중이다. 영화, 레저, 힐링 등 다양한 고객 니즈(needs)에 맞춘 시설을 두루 구비해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풀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은 CJ CGV와 손잡고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을 리뉴얼 오픈했다.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유통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CGV의 기술력을 활용한 특별관에 멀티플렉스 'IMAX 레이저'를 비롯, 4DX와 정면·좌우 3면 스크린이 결합된 '4DX with ScreenX', 오페라하우스 박스석을 연상케 하는

스카이박스를 갖추었다. 누구나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와 음악 방송의 명곡을 감상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Mnet 스튜디오' 등 체험시설도 있다.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미는 '컬처플레이스'를 미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창훈 현대아이파크몰 대표는 "관람하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콘셉트 전환을 통해 쇼핑몰 고객 체류화와 순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에 영화관의 문화·체험 요소가 더해져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세계그룹이 8월24일 오픈하는 스타필드 고양도 같은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복합쇼핑몰이다. 연면적 36만5000㎡에 지하 2층에서 지상4층의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실내 쇼핑테마파크로 쇼핑·레저·힐링을 모

두 갖춘 복합 체류형 공간을 표방한다.

무엇보다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자랑이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등 각종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 완구전문점 토이킹덤과 카페형 블록 전문 놀이방 브릭 라이브 등 키즈 테마파크도 있다. 100여개의 전국 맛집이 입점한 식음 공간은 덩이다.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스타필드 고양은 반경 3km 이내 핵심 상권에 180만 명이 거주하고, 30분 내 접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면 5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초대형 상권 안에 있다"며 "쇼핑과 여가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부동산 O2O 바람 불까, '다방' 새 사업 뛰어든다

매물 정보에 아파트까지 확장
미디어 커머스 '다방샵'도 오픈

부동산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다방'이 아파트 매물 및 매매 시장에 진출한다. 스테이션3는 18일 서울 서초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룸과 투룸, 오피스텔 등 전월세에 한정했던 매물 정보를 아파트까지 확장하고 동시에 매매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정보는 전국 3만여 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를 포함한다. 준공년도와 세대수, 가구당 주차대수 등 기본 정보와 함께 국토부에서 제

공하는 실거래가와 타임별 평면도도 제공한다. 주변 편의시설 및 교통정보는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및 학생당 교사 수, 졸업생 진학현황 등 세부 정보까지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주거 형태와 상황에 필요한 가구, 생활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미디어 커머스 형식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다방샵 서비스도 시작한다. 화면 등 서비스의 전면 리뉴얼도 실시할 계획이다.

스테이션3는 2013년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다방을 출시했으며, 지난해 월세 카드 결제 시스템 '다방페이', 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 '다방프로'를 선보였다. 다방 앱의 누적 다



부동산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다방'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스테이션3

운로드는 1500만건이며, 월간 사용자는 300만 명, 누적 거래 매물은 500만 건이다. 지난해 매출은 94억원이며, 올해 매출 목표는 220억원이다.

김재범 기자

배달의 진화는 끝이 없다...신선식품 배송 경쟁

GS이수퍼, 채소·빵 등 새벽배송 개시
헬로네이처,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

유통업계 배송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최근 새벽에 신선식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GS리테일의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GS이수퍼는 새벽배송을 18일부터 시작했다. 매일 오후 10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우선 서울지역 12개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5000여종의 상품이 가능해, 이중 핵심은 채소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과 홍종혼 베이커리의 식빵, GS25 및 GS이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및 샌드위치 등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3만원 이상 주문 시 배송비는 무료이며 3만원 이하면 2500원이다. GS이수퍼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배송받는 상생배송 서비스도 준비했다. 인천계양센터에 '활 수산물 전용 수족관'을 설치, 활로어와 산낙지, 랍스타, 킹크랩, 참소라, 활전복, 뽕이(작은소라), 활명게 등 수산물을 고객이 지정된 시간에 배송한다. 서비스는 20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유통업계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의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GS이수퍼가 선보인 새벽배송. 사진제공: GS리테일

SK플래닛 자회사인 신선식품 온오프라인연계(O2O) 사업자 헬로네이처는 4월부터 서울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밤 12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다. 헬로네이처는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프레시', 더퍼머스의 '마켓컬리' 등 푸드테크 스타트업들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나용재 GS이수퍼 배송기획 담당자는 "이제 배송은 상품의 품질만큼 중요한 요소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주문하고, 가장 신선한 상태로 빠른 시간에 배송해 고객에게 새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호텔 체인 포시즌스 첫 한국인 총주방장에 이재영 셰프



럭셔리 호텔 브랜드 포시즌스 최초로 한국인 총주방장이 나왔다. 포시즌스 호텔 동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해 2018년 열리는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도시 공모신청에 전북 군산과 부산 등 두 곳이 응모해 패럴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부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세계인문학포럼은 2018년 인문주간과 병행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열린다. 3000여명의 국내외 인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인문학축제로 생산유발효과는 약 101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형 이벤트이다.

중에 한국인이 총주방장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영 셰프는 파크하얏트 서울과 부산, 리츠칼튼 서울 등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한식과 서양식, 일식까지 정통했다. 2015년부터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부총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5개의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김재범 기자oldfield@donga.com

2018 세계인문학포럼 개최지 부산 선정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하는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됐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해 2018년 열리는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도시 공모신청에 전북 군산과 부산 등 두 곳이 응모해 패럴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부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세계인문학포럼은 2018년 인문주간과 병행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열린다. 3000여명의 국내외 인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인문학축제로 생산유발효과는 약 101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형 이벤트이다.

김재범 기자

KT 하반기 4000명 신규 채용

KT그룹이 하반기 40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그룹 차원에서 4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그룹은 금년 상반기에 6000명 이상을 채용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5년부터 개통·AS 및 콜센터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에 편입하는 등 그동안 KT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도 소개했다.

김명근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